

내수를 살리자

놀멍 쉬멍 걸으멍... 제주는 힐링이다

〈놀면서〉 〈쉬면서〉 〈걸으면서〉



낭만이 있는 섬. 제주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씻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삼양검은모래해변(왼쪽)과 전국원드서핑대회 모습.

한국지방신문협회·TV조선 공동기획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엔저 등 국내외 악재로 한국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한국을 찾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일본인 관광객도 크게 줄었다. 7~8월은 한국 관광의 성수기이자 최대 대목이다. 관광이 침체하면 내수 부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행업계는 국민들이 올 여름 휴가만큼은 해외가 아닌 국내 관광지를 선택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의 유력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TV조선은 지난 9~11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에 이어 '을 휴가는 대한민국에서-내수를 살리자'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국 각 시·도의 여름 관광지를 차례로 소개한다.

제주도

"신이 빛은 듯 아름다운 자연 절경과 낭만이 함께하는 힐링의 섬. 제주로 오세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청정지역인 제주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로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피서지로 최지적이다.

제주는 어디서든 '놀멍 쉬멍 걸으멍(놀면서 쉬면서 걸으면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지유의 땅이기 때문이다.

동서로 73km, 남북으로 31km인 타원형 모양의 화산섬은 일주도로 181km, 해안선 258km를 따라 푸른 빛 제주바다로 유혹한다.

섬 중심부에 높이 1950m의 우뚝 솟은 한라산 중턱에서는 자연이 살아숨쉬는 휴양림이 반갑게 맞아준다.

▲낭만의 해변으로 오세요

바다가 아름다운 계절에 맞춰 제주지역 지정 해수욕장 11곳이 이달 1일 개장, 다음 달 말까지 무더위를 씻겨주고 있다.

제주에서는 부담 없이 찾기에 좋은 이호테우해변, 모래점질 매력기 가득한 삼양검은모래해변, 용천수 노천탕을 갖춘 에일을 락지과물해변, 에메랄드빛으로 사로잡는 한림읍 협재·금능으뜸원해변, 코발트 빛이 환상적인 구좌읍 김녕성세기해변, 젊은이들이 몰리는 조천읍 함덕서우봉해변이 여행객들을 맞고 있다.

이 가운데 이호·삼양·함덕·협재 등 4곳은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야간(오후 7시~

메르스 청정지역 피서지 최지적 해수욕장 개장...협재 등 야간 개장 모래축제·살사페스티벌 등 다채 피톤치드 가득한 휴양림 산책도

9시)에도 개장한다.

서귀포시에서도 활처럼 굽고 긴 백사장과 하얀 모래, 기암절벽과 푸른 숲, 모래 언덕이 어우러진 중문색달해변, 최대 넓이를 자랑하는 표선해비치해변, 담수욕이 가능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변, 윈드서핑과 조개잡이를 할 수 있는 성산읍 신양섬지코지해변이 개장했다.

도내 해변들은 흥겨운 여름 축제도 준비해 놓고 있다.

삼양검은모래축제(7월 24~25일), 이호테우축제(7월 31~8월 2일), 발담의 숨결 브로콜리와 락지과물해변과의 만남(8월 1일), 금능원담축제(8월 1~2일), 함덕서우봉해변의 살사페스티벌(8월 30~9월 1일), 표선해비치해변의 서귀포야해페스티벌(8월 3~12일)이 그것이다.

늦여름과 가을로 이어지는 '2015 제주 레저스포츠대축제'도 스키와 감동을 선사한다.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원드서핑대회, 절인3종경기, 카이트보딩대회가 바랑과 함께 화려하게 펼쳐진다.

▲자연휴양림에서 산림욕을 즐겨요

울창한 숲 속 자연휴양림은 맑은 공기와

함께 산림욕으로 삶을 재충전하는 힐링의 즐거움이 넘치게 한다. 도내 휴양림 4곳은 자연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산책로는 물론 야영장, 숙박시설도 갖춰놓고 있다.

제주시 봉개동 절물자연휴양림은 쪽 뻗은 삼나무들이 뽀뽀하게 들어서 피톤치드를 한껏 뿜어낸다. 산림욕은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다. 신경통과 위장병에 효과가 있다는 약수물을 맞보는 것도 즐거움이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자연휴양림은 '제주의 허파' 꽃자왈 지대에 조성된 생태관찰로와 오름 산책로 등을 걸으며 천연 원시림의 진면목을 즐길 수 있다.

산책로 일부 구간에는 1940년대 산전(山田)터와 1970년대 이전까지 숲을 만들었던 가마터가 온전히 남아 있다.

서귀포시 대포동에 자리 잡은 서귀포자연휴양림은 난대와 온대, 한대 수종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50년이 지나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편백나무숲을 자랑한다. 특히 숲길 산책로의 중간 지점에는 계곡물을 활용한 물놀이장이 조성, 어린이와 가족단위 탐방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다양한 경관을 지닌 빼어난 산책코스가 최대 장점이다. 상잔성 숲길(3.2km)과 해맞이 숲길(6.7km), 붉은오름 정상 등반길(1.7km)은 숲 트레킹 애호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뛰어 들자! 동해로

92개 해변 일제히 개장 청소년·레포츠 등 특화



경포해수욕장 번지점프

강원도

강원도내 동해안 6개 시·군의 92개 해변이 지난 10일 일제히 개장했다. 삼척 16곳, 고성 26곳 등은 다음달 16일까지, 강릉 20곳, 속초 3곳, 양양 21곳, 동해 6곳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최장 50일간 운영에 들어간다.

6개 지자체와 상인들은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관광산업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해변마다 특성화를 통해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강릉시는 테마별 타깃별로 해변을 운영한다. 동해안 대표 해변인 경포해변은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해변으로 특색화하고 주문진 해변은 해양레포츠, 연곡은 가족해변, 정동진 해변은 연인해변, 소물해변은 어린이 해변으로 각각 특화했다. 이를 위해 경포에서는 세계청소년 예술축제를, 주문진해변에서는 여름해변바다축제를 각각 개최한다.

동해시는 웰빙 휴양타운으로 조성하고 망상해변에 오토캠핑, 캠핑촌 등을 조성해 운영한다. 늘 푸른 바다예술제와 망상해변축제, 화이트건은모래축제, 전국남녀 비치발리볼대회와 비치 축구대회를 유치해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전략이다.

속초시는 속초해변에 장애인과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장애인·외국인 전용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등 특색 전략을 마련했다. 그동안 부족했던 캠핑장과 샤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했다.

삼척시는 해양 어촌관광프로그램을 확대해 장항해변에 캠핑장을 조성하고 장항·용화·길남 해변에서는 칼라콘서트와 작은 음악회 등을 진행한다. 삼척해변에는 커피를 주제로 한 이벤트를 마련,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고성군은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을 확대하고 송지호해변은 모기 없는 정정 해변이라는 주제로 야영장 주변에 데이지, 마리골드, 바질 등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을 집중 심었다.봉수대 해변에서 카누, 래프팅, 요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해양캠핑을 운영하고 화진포해변에서 모래점질 체험을, 삼포해변에서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했다.

양양군은 바가지 없는 해변을 모토로 낙산해변의 숙박업소는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고 해변별로 조개줍기, 오징어 맨손잡기, 바다속 보물찾기 등 차별화된 이벤트를 개최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강원일보 조상원·신형철 기자



절물자연휴양림



함덕 서우봉해변



협재해변